

본인이 뛰어가서 축하를 드리고 「큰형님」으로 모시겠다고 자청하였다.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들도 대동단결 힘을 합쳐서 대학시절에 美軍政하고 투쟁했듯이 朴正熙 정권에 정면투쟁은 불가능하였지만 기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 것을 합의하고, 산업계 중역과 부장급을 규합하기로 하여 金兄이 뒤에 서고 본인이 앞장서서 산업계 엔지니어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軍事獨裁 정권하에서 이러한 조직을 비밀리에 만들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였으나 화공, 기계,

토목, 전기분과 등 11개 분과의 산업계 중진 엔지니어 300명을 모아서 74년 10월 2일에 한국엔지니어즈클럽을 조용히 출범시켜 본인이 회장이 되고 金兄이 전기담당 이사가 되었다.

그리하여 軍將星, 退役長次官이 독식하던 산업계 중역에 엔지니어를 진출시키고 엔지니어의 사회지위 향상에 같이 노력하였고, 엔지니어들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왔다. 金兄이 개척한 韓電 副社長 자리에는 그후 辛基祚, 成樂正, 金善昶, 文熙晟, 李宗勳, 張基玉, 李東昊, 金永文 등 KEC 회원이 승진되었고 또한 계승될 것이니 저승에서 지켜보시

金鍾珠 先輩님의 靈前에

김 선 창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오늘 홀연히 가신 金鍾珠 先輩님의 靈前에 향을 쬐고 그 영전을 대하는 순간, 나는 가슴에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회를 억누를 수 없어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나 한사람만의 감회가 아니라 金 先輩님을 아는 분이면 누구나 함께 하는 슬픔이요 애도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古稀를 넘기고 두해를 맞은 나이임에도 한점 흐트러짐이 없는 정정한 모습으로 주식회사 무디코리아를 경영하면서 우리 후배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金 회장님의 이러한 모습은 언제나 우리의 귀감으로서 후배들에게 용기와 분발을 일깨워 주기에 족했습니다.

길으로는 매우 차갑고 엄격해 보이지만 그러한 냉철함과 이성이 있었기에 韓國電氣界의 元老로서, 原子力界의 선구자로서 곳곳이 正道를 걸어올 수 있었다고 믿으면서 그 음덕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金 先輩님은 일본동경대학에 입학한 수재로서 해방 후에는 서울대로 옮겨 전기공학을 전공하시고 조선전업에 입사하면서부터 電氣人으로서의 외길을 걸어 왔습니다.

1958년 급전과장시절 유네스코 장학금으로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영국 하웰연구소의 원자력학과와 콜더홀 원자력발전소에서 기술연수를 받고 돌아와 이 땅에 「제3의 불」로 일컬어지는 원자력의

오. 지금회원 중에 起亞自動車の 金善弘 會長, 浦項綜合製鐵의 丁明植 會長, 韓國電力의 李宗勳 社長, 韓火그룹의 成樂正 會長, 三星電子의 姜晋求 會長, 金光浩 社長, 韓國綜合化學, 大林産業, 油公가스, 력키化學, 韓國電力技術, 韓國重工業, 韓電技工, 韓國原電燃料 社長 등이 KEC 회원들이고 회원수도 900명에 이른다.

72년에 金兄이 韓電 副社長이 된 일이 그당시에는 하늘에 별을 탄 것으로 여겨졌는데, 격세지감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도 후배를 위하여 先驅者的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金泳三代

통령이 취임하면서 30여년간의 군사문화를 청산하고 문민정치를 펴나감으로써 한국 엔지니어즈 클럽 설립에 숨어있는 목적의 달성이 촉진되게 되었다.

유명을 달리한 것이 한없이 애석한 일이지는 하지만 산업계 대선배요, 원로로서 저승에서도 틀림없이 후배기술인들을 굶어살피시고 바르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전 기술인과 함께 두손 모아 깊이 故人의 명복을 빌며, 미망인 崔桂香여사와 3남3녀, 그리고 온가족에게 삼가 머리숙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불씨를 뿌리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나라 최초의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사업계획에서부터 노형의 결정과 계약 및 사업 추진을 맡은 주역으로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한전의 원자력 담당이사, 부사장, 원자력 담당고문을 역임하시고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설립하셨으며 한국중공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이 땅의 원자력산업을 일으킨 주역으로 후배들의 추앙을 받아왔습니다.

원자력이 대형플랜트이고 보니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金 선배님은 경쟁사로부터 모함도 받았고 상부의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미처 공개하지 못한 비화도 있고 에피소드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이제는 들을 길이 없는 영원한 침묵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金 선배님과 나 사이에는 꿀을 수 없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조선전업에 입사하게 된 것도, 전기에서 원자력으로 변신하게 된 것도 金 선배님의 지도와 보살피 주신 덕택이었습니다. 그것이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이 나이가 되도록 原子力界에 머물면서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분이 보살피 주신 큰 영광이라 여기면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입니다.

언젠가 나는 故人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동경대학에 입학하고 나니 스스로 자만심이 생기고 세상이 무지개빛으로만 보였는데 그 교만함이 벌을 받았는지 폐결핵을 앓게 됐는데 그때 터득한 것이 「인생을 겸손하게 살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몸도 마음도 그렇게 편할 수 없다고 하시던 말씀을 듣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이제는 유명을 달리하여 우리 후배들만 여기에 남았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그 동안 소식 듣고 병상에 계실 때 문병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너무 무심했음을 후회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추도사를 쓰고 있습니다.

金 선배님을 가까이 했던 후배들도 어느새 60을 훨씬 넘긴 나이들입니다. 인연이 깊어서 인지 선배님이 누우신 隣接에 저도 묘소를 마련했습니다.

언제 가게 될지 모르겠으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선배님의 유지를 받들어 소신껏 살겠습니다.

한마디로 선배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 공로도 많이 남겼고 후회없는 인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저 세상에 가서도 孤高한 氣品 변치마시고 길이 冥福을 누리시기 비오며 이만 合掌再拜 합니다.